

## 2005년 노동부 업무보고

- 머리말 -

노·사·정 대타협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올해는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 정부가 먼저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도덕적 설득력을 가지고 노사를 설득해야 한다. 노동계는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하고, 특히 경영계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먼저 양보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실천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노사의 양보에 바탕한 합의 노력 때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한다.

불합리한 법과 규범은 법·제도를 정비하여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법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승복하고 이행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법체계는 고치되, 위법·불법행위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노동부에서 노력해달라. 기업 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에도 양극화가 심각하다. 제도적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동노력 필요하다. 고용안정 서비스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직업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 고용안정센터의 시범센터 운영으로 성공적 모델을 개발하고,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